

‘빅스텝’ 카드로 물가상승률 잡기 총력...가계 부담은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첫 빅스텝을 포함해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는 최근 IMF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그러나 당장 이달부터 전기·가스·수도요금 모두 오르는 데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전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물가 상승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3%에서 3.9%로 오른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이례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

기대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제동

1,900조원 가계부채 부담 가중

기준금리 연내 2.75% 이를 듯

해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1.5-1.75%에 불과하나, 이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의 정책금리가 연 2.25-2.5%로 급상승하면서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금리가 역전될 경우 국내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자극, 원화 가치가 하락해 수입품 등의 물가가 더욱 더 오를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1,9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및 기업 등의 이자 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제약이 경제성장률에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0.5%p 금리 인상으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지 않아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등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된다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등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 계층의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의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앞으로는 0.25%p씩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나,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거나 경기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 커진다면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과 시장은 이날 빅 스텝으로

2.25%까지 댄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세 차례(8·10·11월) 남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최소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라 연말 2.50%에서 2.7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종료 예정인 9월 말 끝나게 되더라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급에 대해서는 최대 1년 간 현재와 같은 0.25%p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며 “가계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가계 부채 구조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임금교섭 무분규 잠정합의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전문 인력 기술직 신규 채용

대내외 리스크 감안 연봉 9% ↑

현대자동차 노사가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2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이동석 부사장과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각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5차 임금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교섭에서 최근 전동화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공장의 미래

비전 및 직원 고용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기존 노후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다. 이에 사측은 2025년 양산을 목표로 국내에 현대차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신공장으로서의 차종 이관과 국내공장 생산물량 재편성을 통해 기존 노후 공장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등 국내투자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와 연계해 중장기 국내공장 개선 투자 및 미래 제조경쟁력 강화, 작업성·환경 개선을 위한 최첨단 생산·품질 시스템 도입에도 나선다.

이에 노조 또한 대규모 국내공장 투자 추진과 연계한 ▲유휴부지 및 글로벌 수준의 생산효율·품질 확보 ▲투입비율 조정 및 시장수요 연동

생산 등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미래 산업 전환에 따른 인력감소에 대비한 생산현장 기술직 신규채용도 시행에도 합의했다. 사측은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이어갔다.

한편 임금인상과 성과급 규모는 전년도 경영실적 향상 및 최근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등 대내외 리스크를 감안해 전년대비 연봉을 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노사는 미래 자동차 산업변화 대응과 연계해 직군별 특성에 맞게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소 부문 우수인재 및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직급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오지현 기자

삼성 ‘오디세이 네오 G8’ 해외서 호평

주 매체 ‘에디터스 초이스’ 선정

삼성전자의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8’이 해외 주요 매체로부터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로 호평받고 있다. <사진>

미국 유력 매체 뉴스위크는 리뷰 기사에서 “오디세이 네오 G8은 240Hz 고주사율과 4K 해상도를 동시에 지원하는 첫 모니터”라며 “2022년 에디터스 초이스”로 오디세이 네오 G8을 선정했다.

미국의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 전문 매체인 ‘홈시어터리뷰’도 오디세이 네오 G8을 ‘2022년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하며 “오디세이 네오 G8은 빛 반사를 방지해 주는 매트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 주변의 조명이나 자연광에 방해받지 않고 몰입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게이밍 모니터의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호평했다.

이와 더불어 ▲퀵미니 LED를 통한 완벽한 로컬 디밍 기술 ▲sRGB 99%의 정확한 화질 구현 ▲4K 해상도와 HDR 성능 지원을 통한 개인 홈 시어터 시청 경험 제공 ▲240Hz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구현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화질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게이머가 직접 설정이 가능한 다양한 디스플



레이 설정 옵션과 ▲HAS(높낮이 조절) ▲Tilt(상하 각도 조절) ▲Swivel(좌우 회전) ▲Pivot(회전 가로·세로 전환) 등이 적용된 인체공학적 디자인도 큰 호평을 받았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하혜승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오디세이 네오 G8’이 권위 있는 평가 매체들로부터 탁월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더 많은 게이머들이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는 뛰어난 화질과 게이밍 성능을 통해 최고의 게임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대우건설,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어워드’ 수상

건설산업계 발전 기여 공로

대우건설은 지난 12일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Award’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은 BSI에서 국제규격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대우건설은 통합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해 건설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유지·관리는 해외 신규 프로젝트 입찰 시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글로벌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때문에 중요한 경영지표로 인식된다.

백정완 대표이사는 “대우건설의 통합경영시스템은 전 임직원의 참여와 개선 노력으로 국내외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밑거름이

Excellence in Intergrated Management System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왼쪽)가 12일 서울 을지로타워에서 임성한 BSI Group Korea 대표로부터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어워드를 수여받았다. /대우건설 제공

되고 있다”면서 “각종 국제적 기준과 규제를 EGS 경영 체계를 구축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전남농협, 농업인행복버스 사랑 신고 해남 출발

의료지원·장수사진 촬영 서비스

농협전남지역본부와 해남농협(조합장 장승영)은 13일 해남농협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행복버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완센터장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혈압, 당뇨체크 및 척추·관절 질환 건강

상담 등 내과, 정형외과 치료를 실시했다.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의 장수사진을 촬영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서홍 본부장은 “농업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농업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성진 기자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